



## 중심의 삶에서 경계의 삶으로

---

### 1. ‘세계관적 성경읽기’란 무엇인가?

지금까지 나에게 성경읽기란 무엇을 의미했는가? 세계관적 성경읽기와 내 성경읽기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?

---

### 2. ‘성경읽기에 자리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’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?

성경읽기는 정적인 일일까 동적인 일일까?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---

### 3. 같은 유대인으로서 위기를 만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?

내가 꿈꾸는 삶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위치 중 어디와 더 가까운가?

---

### 4. 모르드개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백성들과 한마음이 될 때, 에스더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?

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?

왕궁 바깥의 어려운 사람에게 달려가 함께하는 것, 왕궁 안에서 더 힘을 얻어 도움을 주는 것, 이 둘 중에 나라면 어떤 방식을 택할 것 같은가?

---

### 5. “죽으면 죽으리이다”(4:16)라는 에스더의 말이 “진멸하라”(3:13)와 동일한 단어라는 점에서, 에스더에게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가?

---

### 6. 왕궁 내부에 있던 에스더가 경계를 넘어가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?

나의 성경읽기는 이 요인을 삶에 부여해주고 있는가?

---

### 7. 내 ‘비전’은 ‘중심의 힘에 대한 선망’과 ‘주변적 일상과의 소통’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?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떠한가?

---

### 8. 예수님은 왜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을까?